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28.(일) 11:00,  
(지면) 2024. 1. 29.(월) 조간

배포 2024. 1. 26.(금) 오후

#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 선정

-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5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장소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념행사 개최 세부 일정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월 말 확정 예정

매년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유치를 공모하였으며, 행사장소로서의 타당성조사·검토 후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바다숲과 같은 해양분야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학술행사도 함께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포항시가 블루카본 조성 및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는 환동해권 블루카본 거점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 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6)

## □ 지정 배경 및 목적

-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 법정기념일로 지정('12년,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

## □ 역대 기념식 개최 현황

구분	일자	개최지	주빈	참여인원
제1회	'13.5.10.	서귀포시 (윤진항)	장관	800명
제2회	'14.5.9.	부산광역시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단 이사장	120명
제3회	'15.5.8.	거제시 (구조라항)	차관	1,400명
제4회	'16.1.10.	강원 양양군 (수산항)	수산정책실장	2,500명
제5회	'17.5.12.	서산시 (가로림만)	어업자원정책관	3,000명
제6회	'18.5.10.	태안군 (의항리)	차관	3,500명
제7회	'19.5.10.	완도군 (완도해변공원)	차관	1,000명
제8회	미개최	-	-	-
제9회	'21.5.10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수산정책실장	50명
제10회	'22.5.4.	부산광역시 (국립해양박물관)	장관	130명
제11회	'23.5.10.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장관	1,100명